

제주세계섬문화축제 도민대토론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03년 6월 23일(월) 오후 2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국제회의실

- 주 최 : 제주발전연구원
- 후 원 : 제 주 도

개 회 사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도민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헌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섬문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섬문화축제는 제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문화를 알고자 시작된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계속의 제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의 여론은 분분하였습니다. 이제 제3회 섬문화축제를 준비해야 하건만 그 무엇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섬문화축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다른 일각에서는 개선하고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그 명쾌한 답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제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은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3차례에 걸친 전문가포럼과 기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섬문화축제의 미래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고민의 끝자락이 오늘의 도민토론회인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마주 앉아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과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섬문화축제는 제주도민 모두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때문에 섬문화축제의 미래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도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세계각국은 저마다 독특한 문화를 자원화하고 브랜드화하는 전략을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관광분야일 것입니다. 21세기 관광의 주요 화두는 문화관광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주가 섬문화축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구하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섬문화축제가 제주의 문화를 제대로 표현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도민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도민토론회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6월 23일

제주발전연구원장 고 충 석

토 론 회 진 행

■ 등 록 : 13:30~14:00

■ 개회식 : 14:00~14:10

- 국민의례
- 개회사 : 고충석 / 제주발전연구원장

■ 주제발표 : 14:10~14:30

- 사 회 : 허남춘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주제발표 : '문화의 세기에 있어서의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신동일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 지정토론 : 14:30~16:00

- 사 회 : 허남춘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토 론 : 강문규 / 한라일보 논설위원,
김상철 / 민예총 제주도지회장
김완덕 / 국제여행사 대표,
송정일 / JIBS 편성제작국장
신상순 / 제주국제레저스포츠축제 조직위원장
양창식 /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하순애 / (사)제주문화포럼 이사

■ 자유토론 : 16:00~17:00

■ 폐회 : 17:00

‘문화의 세기’에 있어서의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신동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섬문화축제의 평가와 존재가치
- III. 문화의 세기와 향후 섬문화축제
- IV. 나가며

I. 들어가며

- 1998년과 2001년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이하 섬문화축제)’는 섬·육지·세계가 함께하는 자연·인간·문화의 장 마련이라는 기획의도에서 비롯되었음.
- 이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촉진과 섬과 대륙간의 연대와 번영, 차별화된 문화관광상품개발을 통해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 풍요로운 생활을 갈망하던 20세기 ‘경제의 세기’를 지나 인간 삶의 질을 최우선시하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주문화를 자원화하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는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두차례의 개최결과에 대한 도민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고 더욱이 섬문화축제의 존재가치를 의문시하는 여론이 있음.
- 반면에 섬문화축제의 의미와 가능성을 명분으로 방법론적 개선을 통해 유지 하자는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임.
- 이와 같이 도민사회의 여론이 결집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글은 섬문화축제의 존폐여부에 따른 제주도의 특질을 따져 보고, 보다 본질적인 고찰을 통해 향후 섬문화축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II. 섬문화축제의 평가와 존재가치

1.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개요

- 지난 2001년에 개최된 섬문화축제는 그 내용과 규모면에서 제주 지역사회 최대의 행사라고 할 만함.
- 축제 관련 공식행사 이외에도 '프레학술 세미나' 2회 개최, 1000여명이 참가한 '축제성공 다짐대회', '자전거 전국일주 홍보행사', 언론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홍보·프레스의 밤', 축제개최기념 '주부가요제' 등 다양한 사전행사가 이루어졌음.
- 때문에 그 결과는 어느 행사보다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양분된 도민여론을 결집하고 향후 섬문화축제의 진로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것임.

<표 II-1>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개요

- 축제명 :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World Festival for Island Cultures-Jeju2001)
- 축제기간 : 2001. 5. 19(토)~ 6. 17(일) 30일간
- 축제장소 : 제주시 오라2동 산 39번지 오라관광개발지구(약10만평)
- 주제 : 섬에서 세계로
- 주최 : (사)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 후원 : WTO, PATA, ASTA, UNESCO, KJCC,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제주도, 한국관광공사, 도내언론사 등
- 주관기획사 : (주)대야기획 · (주)대야고속해운
- 참가지역 및 공연회수: 28개국 35개 지역(27개섬) 611명, 919회
- 참여인원 : 26만 3천명(도민 15만 5천, 관광객 9만, 외국인 1만 8천)

<표 II-2>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소요예산(단위:백만원)

구분	계	국비	교부세	도비	자부담/기타
합계	8,866	1,160	1,690	3,150	2,866
조직운영	694			467	227
홍보	1,211	200		420	591
섭외	1,551			840	711
행사	1,630			750	880
회장운영	458			327	131
시설	3,060	960	1,690	346	64
기타	262				262

2.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평가

- 2001년에 개최된 섬문화축제는 내용의 다양성과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에서 실패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본 글에서는 축제후의 여론분석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3차례의 전문가포럼, 관련 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2001 섬문화축제의 긍·부정적인 측면들을 고찰해 봄.

<표 II-3>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개최결과

<p>□ 긍정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하게 국제기구의 공식후원으로 축제의 네임밸류와 인지도 제고 : WTO, PATA, ASTA, UNESCO 등 ○ 제주도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자 참여(400여명)로 국제행사의 경험 축적 ○ 참가지역이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 <p>□ 부정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 유치전략 미흡으로 관람객 유치에 실패 - 관람객 수요추정 과다 (98년 축제보다도 적은 60만명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26만 3천명) ○ 범도민적인 결속과 참여유도 실패 ○ 축제연출/섭외 등 주요부문의 전문가 확보 실패와 한시적, 단기인력투입, 공무원 수시교체(1년에 5차례) 등으로 총체적 조직효율성 저하 ○ 수익사업, 국내·외 홍보, 회장 운영 전체를 대행사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위와의 마찰 등 원활한 행사운영의 걸림돌로 작용-상호책임 전가 및 소송 ○ 사유지에 임시축제장을 운영함에 따라 시설예산 등의 낭비 ○ 축제장소가 중산간에 위치하여 섬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이기에 부적절 ○ 관람객 서비스 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한 행사운영 - 지나치게 비싼 입장료(12,000원), 무분별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부작용 등 ○ 공연단에 대한 사전검증 미흡으로 잠적, 상업목적 참석 등의 물의 야기 ○ 체험·참여프로그램이 부족
--

-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민여론은 섬문화축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들고 있음.

- 그런데 무엇보다도 섬문화축제를 실패한 것으로 단정짓는 근거로는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임.
- 실제로 아래의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문화축제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4>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분석

구 분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총예산 약 90억원)	2002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총예산 약 4억원)
관광수입증대효과	약 529억원(예산의 5.9배)	약 40억원(예산의 10배)
지역생산증대효과	약 894억원(예산의 9.8배)	약 56억원(예산의 14배)
지역소득증대효과	약 618억원(예산의 6.8배)	약 40억원(예산의 10배)

주 1) 두 축제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최소의 경우와 최대의 경우 등 시나리오별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각각 평균치를 기준으로 비교함.

주 2) 지역경제파급효과의 비교는 절대금액이 아닌 투자예산 대비 거둔 효과(상대적 금액)를 기준으로 했음.

-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들어 섬문화축제는 실패한 축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같은 가시적 경제효과만으로 저울질 하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음.
 - 첫째,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나 홍보효과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축제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지역이미지의 제고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섬문화축제는 문화행사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시될 수는 없음.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세계적인 축제들도 지역주민의 행사가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임.

- 즉, 섬문화축제의 실패원인은 경제적 논리 보다는 프로그램의 구성, 관람객 서비스 등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함.
- 따라서 향후 섬문화축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은 도민과 제주도의 역량으로 과거의 운영상의 미숙을 극복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임.

3.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존재가치

- 섬문화축제를 폐지했을 경우와 유지했을 경우 기대되는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II-5> 섬문화축제 지속여부에 따른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폐 지	○ 제주도의 재정부담 제거	○ 도정책의 지속성 비판 ○ 국제적 이미지(신인도) 추락 ○ 타 지역에서 모방 가능성
유 지	○ 국제적 신인도 유지 ○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라는 명분 유지 ○ 도정책의 지속성 유지 ○ 타 지역의 모방 방지(선점유지)	○ 재정부담 증가 ○ 획기적 개편능력 여부가 불투명 ○ 제주도민의 d관련 단체의 융화가 관건

- 이상의 지속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섬문화축제는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속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축제는 그 특징과 성격상 두 번 개최만으로 향후의 성공여부까지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고,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제주관광을 극복하는 문화상품으로 활용가능성이 큼.

- 둘째, 섬문화축제를 폐지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국제적 신인도 추락)이 국제적 관광지를 추구하는 제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국제적 축제가 필요함.
 - 셋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전문가포럼, 제주대학교의 타당성검토, 도의회 및 지역단체의 의견 등은 방법론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개최를 제안하고 있음. 특히, 최근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속찬성은 51.4%이고 폐지찬성은 25.1%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하지만 섬문화축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있음.
- 첫째, 섬문화축제는 제주의 문화인프라라는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함. 즉, 축제는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문화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자 제주문화를 보존·발굴하는 기회라는 인식을 도민 모두가 가져야 함.
 - 둘째, 기존 섬문화축제의 내용과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Ⅲ. 문화의 세기와 향후 섬문화축제

- 섬문화축제를 지속시킨다는 전제하에 향후 섬문화축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1.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의미

- 첫째, 수익사업이 아닌 관광객과 도민 모두를 위한 관광자원 및 문화상품
- 둘째, 타지역과의 문화교류 및 제주 이미지 제고와 역량 확대의 기회

-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가 보유한 글로벌 축제로서의 상징성

2. 축제 장소 : 중문관광단지의 축제장화

- 기존의 오라관광개발지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적절하지 않음.
 - 사유지인 관계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기반정비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실정임.
 - 바닷가와 너무 멀어 섬문화축제의 특징을 살리기에 힘들고, 시내에서의 접근성도 떨어짐.
 - 일반적인 제주관광루트와 인접하지 못하여 관광객 유인효과가 떨어지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임에도 배수시설 등이 취약하여 축제장 환경을 저하시킴.
- 한편, 새로운 축제장을 건설하기에는 경제적·시간적으로도 무리임.
- 중문관광단지는 제주관광의 상징적 공간임에도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으로 섬문화축제를 활용할 수 있음.
- 중문관광단지를 섬문화축제장으로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기대됨.
 - 중문관광단지는 주변 경관이 빼어나고, 교통접근성이 우수하여 거의 모든 내도관광객 뿐만 아니라 많은 제주도민이 찾는 곳으로 섬문화축제 관람객 유인효과가 가장 뛰어난 지역임.
 - 특히, 컨벤션센터는 16여개의 크고 작은 공연·전시·회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섬문화축제와 같은 다목적 국제행사를 치루기에는 적격임.
 - 인근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지 등을 보조축제장으로 활용하면 별도의 인프라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 비용절감의 효과가 기대됨.

- 중문관광단지를 축제장으로 활용할 경우 단지내의 관광지과 호텔 등과의 상호연계·보완 등이 가능하여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기여가능함.

3. 축제 컨셉 : 매회 주테마와 부테마를 달리 선정

- 기존에는 뚜렷한 중심테마 설정이 부족하여 축제의 성격을 명확히 부각시키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흘렀음.
- 따라서 매회별 주테마와 부테마를 달리 선정하되 기본적인 공연, 전시와 더불어 학습관, 체험관 등의 운영 뿐만 아니라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축제의 컨셉을 명확히 하고 품격을 높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섬들의 음악을 학습하는 ‘민속음악교실’, ‘민속악기배우기’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2박3일형, 3박4일형 등의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거나, ‘창작민속음악제’, ‘민속음악워크샵’ 등을 통하여 참가섬의 민속음악을 발굴·전승시키고 창작하는 장을 마련함.

4. 축제 시기와 기간 : 7~8월중 최대 15일이내

- 비수기 타개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5~6월은 장마기간으로 비날씨로 정해진 축제프로그램을 연기시키거나 취소하게 되는 등 관람객의 불만족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섬문화축제임에도 바다에 들어갈 수 없는 시기는 부적하여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름시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7~8월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 관람객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장마기간을 피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여 국내·외 여행사가 패케지상품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제고함.

5. 축제 주체 : 민간전문가로 조직위를 구성

- 과거에는 축제연출·섭외 등 주요부문의 전문가 확보 실패와 한시적 인력투입, 공무원 수시교체(1년에 5차례) 등으로 총체적 조직효율성이 저하됨.
- 또한 대행사에 전적으로 위탁함으로써 조직위와의 마찰 등 원활한 행사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기존의 조직위원회는 권한은 있으나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해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짐.
- 따라서 공무원의 파견을 배제하고 예술단체, 이벤트 전문가,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실무적 기능의 조직위원회로 개편함.
 - 연출·기획 등은 민간의 전문인력을 아웃소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되, 재단법인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가능함.

(경주엑스포, 광주비엔날레, 고양꽃박람회 모두가 재단법인에서 운영)
- (가칭)'섬문화축제준비및평가위원회'를 도관계자, 학계, 기타 전문가등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함.
 - 축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견제하고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함.
 - 축제 준비단계에서는 섬문화축제의 기본방향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단계에는 개최성과와 문제점 등을 공정하게 평가받게 함.

- 이 밖에도 축제가 개최되는 해를 '제주방문의 해'로 선정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함.
- 외국 참가단은 10개국 정도로 공인된 단체만을 축소·엄선하여 축제의 질을 우선 고려하고, 최소의 경비만 지원하는 지역간 교류로 접근함.

IV. 나가며

-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서 얼마나 먹느냐 보다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
- 관광객 역시 과거와는 달리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체험과 공유를 원하고 있고 이러한 관광행태 변화는 문화관광을 21세기 관광의 주요 화두로 부상하게 하였음.
- 이러한 현실에 섬문화축제는 제주문화를 전파하는 기회의 장이자 제주관광의 인프라적 요소로서 간주하여야 할 것임.
- 제주에는 혼인식을 가문잔치라 부르며 3일에 걸쳐 지역민을 모두 불러 모아 치르는 전통이 있는데, 수익을 얻고자 잔치(축제)를 하지는 않음.
-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의 기회로 활용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인 것임.
- 이런 점에서 섬문화 축제 또한 제주와 타지역간의 의사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함.
- 마지막으로 도민 모두가 경제적 시각이 아닌 문화적 시각으로 섬문화축제를 볼 수 있을 때 섬문화축제는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음.
- 바꾸어 말해 기존의 경제적 시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섬문화축제는 지금이라도 폐지되어야 함. 제주의 축제문화와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경제성 문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 참고문헌 □

제주발전연구원,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01.10

제주발전연구원, 2002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02.3

(사)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01 결과보고서

토 론 원 고

세계섬문화축제의 문제와 대안

송정일(JIBS 편성제작국장)

세계섬문화축제의 부실은 마치 우리사회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처럼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기초와 기본의 실종, 논리적 철학의 빈곤, 탁상공론식 이론가들의 득세하는 사회적 현상은 축제의 혼란마저 부추기고 있다. 자생적 산업축제나, 마을축제라면 굳이 위에 열거한 요소들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세계섬문화축제는 엄청난 예산과 전문성이 투여되는 의도적 작품 활동이다.

작품 활동 가운데서도 매우 복잡적이고 규모가 방대한 총체예술이다. 총체예술로서, 전문영역으로서 세계섬문화축제를 인식 할 때 비로소 세계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섬문화축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요소들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1. 축제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

제1회 세계섬문화축제의 테마가“섬 늘 푸른 미래를 위하여”였다. 그동안 변방의 입장이었던 섬들이 모여 연대하고, 그 연대의 힘을 통해 주체적인 미래를 모색해 나가자는 선언적, 실천적 메시지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를 얼마나 담고 있었던 축제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섬들의 이색적인 민속공연 하나로 관객을 끌어드리려는 초보적 축제는 아니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2회 축제의 테마는“섬에서 세계로”였다. 1회 축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는 커녕 테마의 논리조차 맞지 않았다. 축제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1,2회 축제 프로그램은 어땠는가? 대부분 섬들의 민속공연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공연을 감상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는 진정한 축제의 의미가 살아날 수 없다.

섬문화축제는 관객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쓰기에 앞서 주최자들인 도민 모두가 신명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제주 섬의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축제장에 쏟아 부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설정한 의도대로 미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논의들이 풍성해져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섬문화축제는 공연으로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에 앞서 주최자인 제주 사람들이 먼저 즐기고 애착을 갖는 일종의 기념일 같은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브라질의 삼바축제나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말이다.

2. 컨셉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

국내 축제의 경우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많다. 인기가수의 공연이라든지 국적불명의 뮤지컬 공연 등 테마와는 무관한 프로그램이 많다.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관객은 객석에서 감상하는 형태의 공연 프로그램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의미한다. 또한 축제 전체의 컨셉을 흐리게 한다. 세계섬문화축제에서 펼쳐졌던 뮤지컬 같은 공연이 대표적 사례이다.

세계섬문화축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 고립된 섬 환경이 낳은 원시성, 신비성과 같은 원초적 이미지가 아닐까? 일부 축제 집행자들과 예술인들이 대중성 창출이라는 이유로 뮤지컬이나 오페라에다 제주적 소재를 접목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섬문화축제의 고유성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관광객으로 구성된 관객을 감상적 입장에 격리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공연프로그램으로는 축제의 신명성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같이 흔들어대고 같이 어우러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거리축제와 마당놀이 형태의 프로그램개발이다. 축제의 컨셉에 부합되는 고유성을 강조하는 소재들이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그 후에 흥행이나 대중성을 고려한 부대 프로그램이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3. 생활 속의 축제, 테마와 관광지를 연계한 입지 선정

대한민국의 축제는 축제의 컨셉이라든지 주민의 생활과는 무관한 산과 바다로 향하고 있다. 마치 옛날 가설극장을 연상하듯이 일정한 공터에다 기반시설을 해 놓는다. 입장료 받기도 용이하고 관리하기도 편하다. 이 발상이 문제다. 결국 관객과 출연자가 격리되는 서구식 공연 밖에 할 수 없다.

선진 관광지의 축제는 생활공간에서 열린다.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가 그렇고 일본의 유끼 마츠리가 그렇다. 호텔 창문만 열면 축제현장이 보이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다행스럽게도 제주에는 세계섬문화라는 테마도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와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

관광지를 연계해야만 하는 이유는 현행 단체관광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여행사들이 아무런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축제공간으로 관광객을 데려가겠는가?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적 축제를 관광객들이 대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세계섬문화축제의 공간을 5군데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앞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열거해본다. 제주시의 경우 탑동광장, 북제주군은 한림공원이 인접한 협재해수욕장 주변, 남제주군은 성산 일출봉과 섭지코지를 잇는 신양해수욕장 일대, 서귀포는 천지연 계곡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다.

또한 컨셉과는 무관하지만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중문일대에서 축제를 치르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 경우 시설비 절감, 장소의 쾌적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4. 축제의 주체와 컨셉에 어울리는 경제적 시설

축제의 주체는 단연 주민이어야 한다. 현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축제장소별로 축제위원회 같은 주민기구가 만들어져야한다. 이러한 마을별 축제기구에 의해 주체적으로 집행되고 그 지역특유의 민속프로그램과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은 기존의 경직된 대형 천막시설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품(돌담, 삼나무, 띠 등)을 활용한 소규모의 비가림 시설을 대량으로 짓는 것도 바람직하다.

메 모 란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box is centered on the page and occupies most of the vertical space below the header.

메 모 랑

메 모 랑

메 모 란

메 모 란